

번호: PO-MA-004					
제 목	신호등 지도로 본 부산광역시 1차 의료기관 분포 Traffic-light map of Distribution of Clinics in Busan				
저 자 및 소 속	엄상화1), 손혜숙1), 이종태1), 전진호1), 김성준1), 유병철2) 1)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Sang-Hwa Urm1), Hae-Sook Sohn1), Jong-Tae Lee1), Jin-Ho Chun1), Seong-Joon Kim1), Byeng-Chul Yu2) 1)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Inje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2)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Kosin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분 야	의료관리 [기타]	발 표 자		발 표 형식	포스터
서론: 최근 들어 의료지리학(medical geography)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면서 지리정보체계(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의 중요성과 응용분야가 확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2004년을 기준으로 부산광역시의 의료 기관 분포 양상을 파악하고 도식화하여 지역 환경에 따른 의료 서비스의 분포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방법: 부산광역시 16개 보건소에 신고된 1차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들 중 일반의원에 근무하는 개업의사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16개 구군별 의원 수를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별하여 Traffic light map으로 표시하였다. 인구 만명당 의원수에 따라 많은 구군 3개를 파란색으로, 중간 구군을 노란색으로, 적은 구군을 빨간색을 표시하였다.					
결과: 진료과목 구분없이 본 인구 만 명당 의원 수는 부산진구, 동구, 중구가 가장 많았고, 기장군, 사상구, 강서구가 가장 적었다. 인구 만 명당 내과의원 수는 동구, 수영구, 중구가 가장 많았고, 산부인과 의원 수는 동구, 해운대구, 영도구가 가장 많았고, 산부인과 의원 수는 부산진구, 해운대구, 중구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마이너케일 의원 수는 진구, 수영구, 중구가 가장 많았다.					
결론: 부산지역 각 구군을 의원 수에 따라 빨강(위험), 노랑(보통), 파랑(양호 혹은 과다)의 3가지색으로 간단하게 신호등 지도로 나타내면 의료기관의 분포를 보다 확연하게 빠르고 효과적으로 파악 할 수 있었다. 신호등 지도는 의료기관 분포의 지역적 균형을 빠르게 비교 확인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의 하나이고, 보건 의료 분야에서 지리 정보체계의 활용 및 확대적용의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중심단어: 신호등 지도(Traffic-light map), 의원분포					